경기도의회

vol. 299

산사에 내려앉은 가을

천년 은행나무가 물든 길



Contents

vol.299



12



14


76

의정홍보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김승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6)
김해련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7)
윤도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3)
최수연 위원(더불어민주당, 양주3)
정윤경 위원(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
이하유 위원(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창작학부 교수)
김부용 위원(경기도의회 언론홍보과)
도연수 위원(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발행처
경기도의회

발행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편집인
진용복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발간일
2026년 10월 2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언론홍보과(뉴미디어팀)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문의 전화 031-8008-7123

제작
경성문화사

시각장애인을 위해 성우가 읽어주는 e-book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경기도의회>를 만나보세요. www.ggc.go.kr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경기도의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의 길

06 **의장 개회사**

08 **본회의 일지**

12 **의회 소식**

18 **5분 발언**

26 **도정 질문**

31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58 **우리 지역 도의원**

73 **신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소개**



삶의 길

76 **휠체어로 떠나는 여행**
과학과 예술 사이, 모녀의 가을 데이트

80 **의정 웹소설**
밤 11시의 의자

84 **당신을 기억합니다**
소녀로 남은 엄마를 기억하며

86 **건강 100년 노트**
건강검진표 속 숫자, 혈관의 신호를 읽다

88 **천천히, 디지털**
디지털이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90 **응답하라 경기**
그 골목이 어찌나 넓어 보였던지

92 **[웹툰] 의회툰**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일까요?

94 **경기 문화 한마당**

96 **독자 솜씨 마당**

98 **의정홍보위원회 편집 후기**

Chapter 1



의정의



가평군 자라섬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하루의 끝에서 날개를 펼치듯
더 나은 내일은 오늘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도민의 하루에 무엇이 필요한지,
작은 변화가 삶에 어떤 의미로 남는지
한 번 더 살피고 헤아립니다.
도민의 오늘을 깊이 바라보는 것,
그곳에서 내일의 의정이 시작됩니다.

위기 앞에 책임으로, 도민 앞에 성과로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편성된 추경입니다. 그만큼 이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무엇을 지키고 어디서부터 바로잡을지 결정하는 예산입니다. 일부 사업은 아홉 달 치 예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노인 돌봄과 학교 급식, 결식아동 지원처럼 도민 일상과 맞닿은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의회의 심의는 더욱 꼼꼼해야 합니다.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도민 입장에서 정해졌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줄였다면 그 이유와 기준도 분명해야 합니다. 근거와 미칠 영향을 잘 판단하고 그 부담이 도민들께 돌아가진 않을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도 위기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일수록 피하지 않고 의회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줄이는 일만으로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세수 불안의 원인을 짚고, 경기도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개선할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에 맡긴 책임만큼 재정 권한을 보장하는 강력한 재정분권 논의도 함께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민선 9기 도정이 출범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도와 의회 사이의 소통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안을 논의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통로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의회와 함께 도정을 풀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뒤로 미룬다면 집행부가 의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우려만 커질 뿐입니다.



> "어려운 결정일수록 피하지 않고 의회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추미애 도지사께 요청합니다. 도와 도의회가 필요할 때 지체 없이 협의할 수 있도록 멈춰 있는 소통의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주십시오. 의회와의 대화를 도정 운영의 기본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의회와 함께 도정을 풀어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중요한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는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됩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전국 시도 의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제도의 변화로 이어가라는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16개 시도 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공고히 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끈기 있게 설득하겠습니다. 그 설득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지방의회가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그 점에서 경기도의회의 책임이 큽니다. 167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의회의 역량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민들은 우리 의회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했는지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의정활동 전반에서 청렴의 기준을 높이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도민들께 믿음을 드리고 지방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믿음에 제대로 답하겠습니다. 도민 삶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고, 그 성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르포

도민을 향한 새로운 출발
제12대 의정의 첫걸음

초가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9월 1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막이 올랐다. 제12대 경기도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알리는 첫 회기인 만큼 본회의장에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함께 감돌았다.

개회식에서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은 이번 임시회의 핵심 과제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꼽았다. 남종섭 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 도민 일상과 맞닿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감액의 기준, 도민에게 돌아갈 부담까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 의회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를 9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추미애 도지사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추경을 “무엇을 더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9월 2일과 3일 열린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첫 대집행부질문이 쏟아졌다. 고은정 부의장(더민주, 고양10)은 “의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묻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을 듣는 첫 자리”라며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법과 대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부의장(더민주, 군포3)도 “도민 삶을 살피고 도정 방향을 점검하며 함께 돌아보는 의회와 집행부의 중요한 소통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틀 동안 의원 13명이 질문자로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짚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 해법을 모색했다. 본회의장을 찾은 도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농업과 화훼, 장애인, 사회복지 등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서 찾아온 도민들이 의정활동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도민의 목소리와 정책이 만나는 지방의회 논의의 현장을 함께했다. 이틀간 진행된 대집행부질문 후 안건 심사가 이어졌다. 재정 비상 상황에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정과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들이 위원회별 심사를 거쳤다. 9월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됐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을 고민하고, 새롭게 출범한 의회와 집행부가 도정의 방향을 점검한 제393회 임시회. 초가을 의사당에서 이어진 18일간의 논의는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도민 삶을 살피고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갈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였다.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6. 9. 1.)

제393회 임시회 2026. 9. 1.~9. 18.

조례안
55

규칙안
2

승인안
13

동의안
71

주요 안건 처리 현황

154건

※ 2026. 9. 23. 기준

결의안
1

건의안
11

의견청취
1

원안 가결 149, 수정 가결 5

본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될까요?

본회의는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167명이 경기도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① 회의 시작
모든 의원이 자리에 앉으면,
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② 보고
지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③ 조례 상정
조례는 경기도의 법과 규칙입니다.
의원이 새 조례를 공식 상정합니다.

④ 토론
상정된 조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좋은 점과 문제점을 토론합니다.

⑤ 5분 자유발언
의원이 5분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입니다.

⑥ 대집행부질문 및 답변
의원이 질문하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답변합니다.

⑦ 투표
상정된 조례나 정책의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⑧ 결정
투표 결과에 따라 조례가 통과되거나,
재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⑨ 회의 종료
모든 일정을 마치면,
의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

- **경기도청** 주형철 경제부지사, 홍은광 대변인, 이원구 홍보기획관
- **경기교육청** 이철우 홍보기획관, 윤상현 감사관, 채열희 학교교육국장, 오재길 지역교육국장

5분 자유발언

발언 의원
31명

(발언 순 기재)

발언 의원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9)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	국은주 의원(국민의힘, 비례)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	최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대집행부 질문

발언 의원
13명

(발언 순 기재)

발언 의원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	

전국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출 · 국회 공동기자회견 적극 행보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하나로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이 8월 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을 맡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지방의회 간 연대 강화, 교육 및 정책 교류 확대를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과 정당을 넘어 광역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의회까지 연대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숙원을 하나씩 풀어가겠다."

남종섭 의장은 경기도가 축적한 역량과 정부·국회와의 협력 기반을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시도 의회 의장들은 '국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분권 완성'이라는 피켓을 들고 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과제를 정부의 논의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을 위해 모인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중앙정부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남종섭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더민주, 수원7), 방성환 의원(국힘, 성남5),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 최찬민 의원(더민주, 수원6) 등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8월 26일에는 남종섭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남종섭 의장은 회의에서 16개 시도 의회를 대표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원 70주년, 제도 변화의 출발점으로

9월 2일, 남종섭 의장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70년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었다. 지방자치의 성장에 걸맞게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입장문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오늘의 경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더 충실히 담아낼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전국 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해 올해 안에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겠습니다. 더 큰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며, 도민의 뜻을 정책과 예산에 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고, 더 단단한 지방자치로 도민의 삶에 답하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국회에서 촉구한 권한과 책임





남종섭 의장은 9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법적 보장과 정책 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와 자체 감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자치가 성장하는 만큼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운영체계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라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이룰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9월 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국 시도 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 연대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한 촉구까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실질적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현장 종사자 격려



고은정 부의장,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력에 감사”

고은정 부의장(더민주, 고양10)은 9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오늘날 ‘복지 경기도’가 자리 잡기까지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라며 “사회복지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그간의 헌신이 개인의 희생에 그치지 않도록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도내 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회복지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6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막

“도민 위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협치의 장 만들 것”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9월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식을 열고 하반기 정책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에는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을 비롯해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과 양당 대표단이 참석했다. 2018년 시작된 정책토론회는 도정·교육 현안을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도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모아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 협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는 상반기 11회를 포함해 총 66회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남종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쌓인 토론 자료가 새로운 정책 논의의 밑바탕이 되는 소중한 정책 아카이브(정책 저장소)가 됐다”라며 “올해 이어질 55회의 토론이 도민께 필요한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림책꿈마루 개관 3주년 축하



김미숙 부의장, “아이들의 꿈 키우는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김미숙 부의장(더민주, 군포3)은 9월 1일 그림책꿈마루 개관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미숙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 교육학자 호러스 맨의 “책이 없는 집은 창문이 없는 방과 같다”라는 말을 인용해 책과 독서의 가치를 강조하며 “그림책꿈마루가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우는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평가했다. 또 그림책꿈마루를 이끄는 최효숙 관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어 김미숙 부의장은 “지난 3년 동안 그림책꿈마루가 군포시민의 사랑 속에서 잘 성장해 온 만큼 앞으로 3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군포의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심의 위원회 출범

의원 연구활동, 조례·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내실 강화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9월 7일 의회 접견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심의 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갔다.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실질적 의정 성과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는 심의를 당부했다.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과 연구용역 계획, 활동 결과 등을 심의해 연구 성과가 조례 제·개정과 정책개발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첫 심의에서는 연구단체 등록 37건과 연구용역 계획 26건 등 총 63건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3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청렴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신뢰받는 의회 만들어야"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9월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규정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앞서 전 의원 대상 청렴서약식과 전 직원 대상 갑질 예방 및 부패 방지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은 "청렴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은 과감히 고쳐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단국대학교 단국G-RISE사업단, 의정과 대학 연구·교육 교류협력

의정 현장과 대학 연구·교육 역량을 잇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단국대학교 단국G-RISE사업단(단장 조완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정 현장과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연계한 교류협력에 나섰다.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은 8월 24일 의장 접견실에서 조완제 단장과 '경기도의회-단국대학교 단국G-RISE사업단 교류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와 공동사업, 인적 교류를 비롯해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현장실습·기관방문·진로특강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남종섭 의장은 "도의회는 현장에서 도민의 요구를 듣고 대학은 연구·교육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의 강점을 잘 연결하면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2027 전국체육대회' 국비 지원 확대 건의



국회 찾아 대회 운영비 350억 원의 정부예산 반영 요청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과 채신덕 의원(더민주, 김포2), 이미정 의원(더민주, 비례) 등은 9월 3일 국회를 방문해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만나 대회 운영비로 국비 350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종섭 의장은 "2027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경기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체육 행사"라며 "개최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회 준비와 운영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예결특위, 제2회 추경안 심사 사전설명회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 되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기)는 8월 26일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예결특위는 경기도 재정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사전점검에 나섰다. 백승기 위원장(더민주, 안성2)은 "지방세 감소로 인한 엄중한 재정 상황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제12대 경기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활동인 만큼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출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도민 체감형 의정 홍보 강화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9월 2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전략적 의정 홍보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의정 홍보물 제작과 편집 방향,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 전략 등을 심의하며 주요 홍보사업의 방향을 살필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 부위원장에는 김승기 의원(더민주, 남양주3)이 선출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기존 홍보 방식을 점검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다 효과적인 의정 홍보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5분 발언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12대 의원들이 경기도민을 대표해 심의 의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발표한 의견을 모았다.



"민생 회복과 교육 대전환 실현은 소통과 협치로"

김회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6)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에 도민이 기대하는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등을 담은 '경기도 6대 비전'과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위한 '경기교육 대전환 4대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를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소통과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규제보다는 상생과 지원으로"

김선희 의원
(국민의힘, 용인6)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서 속도와 안정적인 인프라는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용수 방류 갈등과 환경규제 등으로 반도체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관·공 협의체를 가동해 갈등을 중재하고, 일방적 규제와 시군의 재정 부담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자로 나서야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한 안성의 희생에 실질적 보상 필요"

백승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성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환경·사회적 부담이 인접한 안성 도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류 수로 문제와 발전소·송전선로 설치 등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부족합니다. 경기도는 상생 협약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로·하천 정비와 수질 개선, 농업용수 확보 등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상체험학습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미래 교육 기회 확대"

최미금 의원
(국민의힘, 비례)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체험 교육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XR(확장현실)을 활용한 가상체험학습은 안전사고 부담을 줄이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현장체험학습과 디지털 체험을 결합해 교육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가정형편이나 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공정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운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1)

"김포-고양 연장선, 경기도가 예타 통과 앞장서야"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은 주요 철도망을 연결해 경기 서북부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핵심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 특성과 균형발전 효과를 반영할 여건도 마련됐습니다. 경기도가 인천·김포·고양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예타 통과를 이끌어야 합니다. 통과 이후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안계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5)

"평택항 중심 서평택 개발,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평택항 주변은 배후단지와 포승·현덕·화양지구, 평택호 관광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서로 연계되지 못한 채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주거·관광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합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산 축소를 멈추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평택항을 경기 서남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김귀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4)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단계적 이전과 활용 방안 마련하도록"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30여 년간 수도권 물류 거점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대규모 주거단지와 도심 생활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8년 1단계 시설 운영 종료를 계기로 물류 기능을 단계적으로 분산·재배치하고 중장기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전 과정의 교통·환경 피해를 줄이고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김한슬 의원
(국민의힘, 비례)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촉구"

고교학점제가 시행됐지만 학교 규모 및 지역에 따라 개설 과목과 실험·탐구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별 과목 개설과 교육 인프라 격차를 파악하고 대학·연구기관 등과 전문가를 공유하는 탐구 자원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교육과정도 학생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교육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GTX-A 전 구간 연결 지연 해소에 경기도가 나서야"

최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4)

GTX-A 삼성역 공사에서 시공 오류가 확인되면서 전 구간 연결 일정 시기가 불투명해졌지만 안전성 검증과 보강 범위,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관계 기관의 결정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협의 당사자로 나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속히 정상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종료 후에도 공공 책임 지속 필요"



신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4)

공적 지원을 받아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를 앞두면서 매각 기준과 임차인 보호 절차 미비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료 현황과 매각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사업자, 관계 기관 간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 거주 임차인의 우선 협상과 가격 산정, 분쟁조정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합니다.



"기후 재난 시대 농업 지키기 위한 농정 예산 확대 촉구"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2)

폭염은 농업인에게 단순한 계절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입니다. 고령농과 취약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와 쉼터, 응급의료 연계 등 실질적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줄어든 농정예산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연구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합니다.

"도농 에너지 격차 해소와 광주 역세권 주민 신뢰 지켜야"



김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4)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농촌 지역은 낮은 경제성 탓에 여전히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방식이 갑자기 변경된 광주 역세권 2단계 사업도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국토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시 간 협의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박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파주1)

"기후 재난 시대, 취약계층 위한 대응체계 마련 시급"

극한 호우와 폭염 등 기후 재난이 일상화됐지만 기존 재난 매뉴얼은 변화한 기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는 재난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최근 기후 위기를 반영해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고 맞춤형 대피 지원과 재난, 복지, 여성 부서 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평택 교통 혁신으로 경기 남부 30분 생활권 앞당겨야"



한승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6)

평택은 인구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역·시내버스와 똑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고덕지구에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과 GTX-A·C 평택 연장, 미래형 환승센터와 수소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 남부의 30분 생활권을 앞당겨야 합니다.



김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예비군훈련장, 권역별 통합체계 구축 필요"

경기도 예비군훈련장은 시군 경계를 넘어 권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전과 통합은 여전히 개별 시군에 맡겨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훈련 수요와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별 통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통합 지역에는 지원과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능을 잃은 군 부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자산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신안산선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오진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9)

송산그린시티는 도시개발 속도를 교통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각한 출퇴근 정체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을 송산그린시티와 대부도까지 연장하면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국제테마파크와 서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연장안이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제성 확인된 갈매역 정차, 정책적 결단 필요"

장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구리1)

GTX-B가 구리시를 관통하지만 정차역은 없고,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등 부담만 떠안게 됩니다. 갈매역 정차는 국가철도공단의 검증을 통해서도 경제성이 확인됐고, 구리시도 운임 손실 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비를 부담하고도 편익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결정을 재검토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실행 절실"



국은주 의원
(국민의힘, 비례)

같은 자격으로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근무 기관과 사업 유형에 따라 처우 개선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월 5만 원에 머문 처우 개선비를 현실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도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웰빙 보조비 역시 지속 사업으로 전환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헌신에 책임 있는 정책으로 답해야 합니다.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으로 교통난 해소해야"

임유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

고양 식사·풍동 지역은 개발과 인구 증가로 교통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철도 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을 고양시청에서 식사동까지 2.04km 연장하면 10만 명이 넘는 주민의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식사 연장안을 반영하고 후속 절차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같은 도로 다른 할인, 통행료 사각지대 개선 촉구"



최수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주3)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 구간은 같은 도로를 이용해도 진출 IC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로는 연결됐지만 제도가 끊어진 행정의 사각지대라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양주IC 이용자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유사 사례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철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8)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재정난에도 꼭 지켜야 할 약속"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명예 회복은 일반적인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국가 폭력의 상처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입니다. 피해자 배상금과 역사문화공간 조성 예산을 재정난을 이유로 대폭 줄여서는 안 됩니다. 미발굴 피해자와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고 피해 지원과 배상,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3)

"청년·신혼 주거 사다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복원에 힘써야"

청년과 신혼부부는 높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지만 맞벌이 소득 기준에 막혀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가 많은 경기도는 주거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복원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지켜야 합니다.



서인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재정난에도 AI와 미래세대 투자는 유지해야"

재정난을 이유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를 비롯해 기업 지원과 기술 실증, 인재 양성 등 AI 관련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정부가 AI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미래 투자부터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청년과 교육, AI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재정위기 해법, 시군에 부담 넘기지 말고 충분히 검토·소통해야"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과 도비 보조율 제한에 나서 시군과 민생사업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운용과 관사 예산 등 재정 집행 기준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기교육도 기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뒤집기보다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도와 교육청은 의회를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고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최상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1)

"20년을 기다린 수원영화혁신지구, 더 이상 멈춰선 안 돼"

수원 영화동 부지는 2004년 문화관광지구 지정 이후 20년 넘게 표류했지만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려면 경기도가 기관 간 조정에 나서고 경기관광공사의 출자 타당성 검토를 서둘러야 합니다.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사업이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화국제예술고 설립, 경기북부의 교육자산으로 키워내야"



최지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희생해 온 파주에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한 가칭 '평화국제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기존 교육·숙박시설을 활용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한다면 글로벌 예술인재 육성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공동 TF를 구성하고 평화경제특구 교육시설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대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3기 신도시 성장은 주변 기존 도시와 함께 이뤄져야"

왕숙 3기 신도시 개발로 교통과 생활권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진접·오남 등 주변 기존 도시까지 함께 살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로와 하천, 공원과 보행환경 등 개별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연계하고 교통병목과 안전 문제도 입주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경기형 15분 생활권을 신도시 경계 밖까지 넓혀 기존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청년대회 앞두고 지방도 325호선 순례 구간 안전대책 마련해야"



최보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1)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는 최대 100만 명의 국내외 순례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천진암으로 향하는 지방도 325호선 일부는 보행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보행 덱(deck)을 대회 전에 우선 완공해야 합니다. 이후 둘레길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잇는 체류형 관광자산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최순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행정 칸막이 낮추고 경기북부·아이 위한 정책 실천해야"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의 칸막이를 낮추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해 한정된 예산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오랜 규제로 희생한 경기북부에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며, 돌봄정책도 부모와 운영자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을 강화해 아이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건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1)

"남양주 공공의료원·지방도 387호선, 차질 없이 추진해야"

남양주권역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없어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할 공공의료원 설립이 시급합니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서두르고 재원과 의료 인력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 확장 및 포장도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고 보행자와 통학생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주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성1)

"안성휴게소의원 폐쇄 아닌 개선, 공공의료 지켜야"

안성휴게소는 고속도로 응급환자는 물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인근 농촌 주민에게도 중요한 공공의료시설입니다. 이용자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자만을 이유로 폐쇄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홍보 확대와 진료 시간·인력 조정, 관계 기관 간 운영비 분담 등 개선책을 먼저 추진하고 폐쇄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도민을 대표해 묻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에게 묻다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경기도 재정위기 진단 객관적 근거와 책임 있는 대응 필요



김태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2)

Q 경기도의 재정 지표는 「지방재정법」상으로나 정부 재정 지표로 보아도 위험 기준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현재 상황을 '재정위기'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A **추미애 지사**

지표상 위기 단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입니다. 1년 반 동안 다섯 차례나 지방채에 의존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해법도 생깁니다. 이런 질의와 응답을 통해 위기 인식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정책 연속성 지키고 신성장 거점화 로드맵 마련해야

윤종영 의원
(국민의힘, 연천)

Q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기존 북부 발전정책을 이어가고, 규제·재정·산업·교통 문제를 해결할 더 강력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추미애 지사**

'경기 북부 대개발 2040' 등 기존 발전정책의 장점은 승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를 잘 활용하고 규제를 풀어 경기 북동부를 신성장 거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쯤에는 그런 로드맵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성장과 지역 상생 위해 상생협력체계 구축 필요

임창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2)



Q 반도체·AI 클러스터 구축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의 용수·전력 인프라로 부담을 지는 경기 동부와 수혜 지역, 기업, 정부기관의 상생협력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A **추미애 지사**

전력과 용수, 폐수 처리 문제 등을 유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의체는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곧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필요성과 재정 부담 따져야

정용한 의원
(국민의힘, 성남8)

Q 재정 비상 상황에서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본금과 조직 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추미애 지사**

재정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할 수 없기에 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도의 재정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원하는 시군과 도민, 민간자본이 함께 참여해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 달라도 같은 자립 청년, 공정한 출발 지원 필요

박순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8)



Q 같은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쉼터라는 시설 유형의 차이 때문에 자립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쉼터 퇴소 청년에게 보다 공정한 자립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A 추미애 지사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차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경기도정의 첫째 가치로 꼽는 공정에 반하는 불공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등학생 통학권 위한 안심에듀버스 확대 필요

김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4)

Q 현행 조례는 고등학생까지 통학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학생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지원 확대 계획이 필요합니다.

A 안민석 교육감

파주시 파프리카 사례를 보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해 '안심에듀버스'를 공약에 넣었습니다. 원하는 지자체부터 적극 추진하고, 가능한 4년 내에 필요한 모든 지자체에 안심에듀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은 지키고 불요불급 사업은 조정해야

박옥분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



Q 재정 비상 상황의 부담이 도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민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A 추미애 지사

도민의 생명·안전, 취약계층의 생계·돌봄 등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은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3년 이상 지속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도 평가하는 등 제로 베이스에서 재정사업 전반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공급 앞서 선교통·선기반 시설 확보 전제해야

김현석 의원
(국민의힘, 과천)

Q 신규 주택 공급으로 교통혼잡과 과밀학급, 기반시설 부족을 경기도민이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택지 지정과 입주에 앞서 교통,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해야 합니다.

A **추미애 지사**

신규 공공주택지구 건설에 따른 환경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급 시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 적정 지역에 공급되도록 하고,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영아 급식 지원 격차 해소해야

변재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2)



Q 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도 0~2세 영아는 유아와 달리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영아에게도 형평성 있는 급식 지원이 필요합니다.

A **안민석 교육감**

영아 급식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과 상의해 국회를 설득하고 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자체와 함께 유보통합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재기까지 연결하는 소상공인 생애주기 지원 강화

최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Q 소상공인 지원을 창업, 성장, 위기, 폐업, 재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체계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제 생존율과 매출 회복 등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A **추미애 지사**

창업부터 성장,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바로'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기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콜센터에는 AI 챗봇(자동 상담 서비스)과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성과로 경기교육 5대 개혁 증명해야



김일중 의원
(국민의힘, 이천1)

Q 폰 프리 스쿨*과 교권보호국 신설, 라스(RAS) 교육** 연계 등 5대 교육개혁이 구체적 설계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폰 프리 스쿨: 일과 시간 동안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교육정책
** 라스(RAS) 교육: 독서(Reading)·예술문화(Arts)·스포츠(Sports)를 학교 수업과 일상 속에 연결하는 교육

A 안민석 교육감

오랫동안 준비한 경기교육 5대 개혁으로 4년 후 아이는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성장 뒷받침한 팔당 주민, 규제 합리화와 실질적 지원 필요

Q 반도체 클러스터에 팔당 수계의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상수원 보호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또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합리화와 실질적 상생 대책이 필요합니다.

A 추미애 지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중첩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을 추가 발굴·확대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주민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8)

청소년활동 지역 격차 줄이고 지도자 처우 개선 체계 마련해야



김진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6)

Q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의 회복 정도와 31개 시군 간 격차를 점검하고, 청소년 지도자의 보수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A 추미애 지사

시군별 청소년활동 격차를 포함한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며, 보수 수준과 근로 여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여건에 맞는 처우 개선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의 삶
가까이,
13개의 약속

도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기 위한
의원들의 새로운 약속이 시작됩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의회운영 위원회

책임 있는 의회 운영과 도민 소통 기반 강화

- 추경,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하고 청렴·투명성 제도 보완
- 지역상담소, 홍보 예산 등 의정활동 지원체계 실효성 점검



장한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4)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한별)는 9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 행동강령 등의 조례안과 건의안 10건을 의결했다. 또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도민 참여 사업과 홍보·소통 예산의 효과성을 점검했다.

장한별 위원장(더민주, 수원4)은 9월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마련한 것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다. 장한별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는 첫 대표발의 의안인 만큼 입법 활동과 관련한 비용추계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01



02

이오수 부위원장(국힘, 수원9)은 9월 1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식 캐릭터 '봉공이'의 활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봉공이는 오랜 기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한 경기도의 공공자산"이라며 "도민에게 사랑받아 온 캐릭터의 가치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더민주, 용인4)은 9월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정 홍보 예산 감액이 언론 현장과 도의회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전자영 의원은 "한쪽 예산만 줄이는 방식보다 전체적인 홍보 예산 구조와 현장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라며 적절한 예산 운영을 당부했다.

이자형 의원(더민주, 광주3)은 9월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03



04



05

01.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2026. 9. 14.)
02. 장한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
03.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9)
04.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05.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

기획재정 위원회

재정위기 속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제도 개선 집중 점검

-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 개선 촉구 및 민간 위탁, 출연 계획 엄정 심사
- 세입추계, 기금 운용, 시군 재정 부담 등 재정 운영 원칙 집중 점검



김창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9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재정위기 비상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도의 출연 의무를 감면 또는 유예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창식 위원장(더민주, 남양주5)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관행이나 행정 편의가 아닌 공정성, 효율성, 재정 책임의 기준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운남 의원(더민주, 고양11)은 9월 4일 추경안 심사에서 시군 종합 평가 인센티브 삭감과 인구정책 예산 감액, 세입 과다 추계 문제를 점검했다. 김운남 의원은



01



02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사업을 늘렸다가 약속을 뒤집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김한슬 의원(국힘, 비례)은 9월 4일 상임위 추경안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을 집중 점검했다. 김한슬 의원은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더욱 명확한 예산편성 원칙과 책임 있는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더민주, 화성8)은 9월 7일 회의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구조와 경기연구원 예산을 살폈다. 김영수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적지 않은데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정균 의원(더민주, 비례)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도비 기준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을 정비·중단하려는 방침을 지적했다. 박정균 의원은 "재정위기 대응이 시군의 필수 복지·안전·민생사업을 위축시키는 방식이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03



04



05

01.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2026. 9. 7.)
02.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
03.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
04.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05.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제노동 위원회

민생경제 지키는 예산과 정책 실효성 집중 점검

- 소상공인,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 대규모 감액 문제 제기
- 공공기관·위탁사업 운영 살피고 현장 중심 지원 강화 주문



장태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왕2)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는 9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민생 현장과 연결된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집중 점검하고, 전액 삭감된 '통큰세일' 하반기 예산 약 31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장태환 위원장(더민주, 의왕2)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및 노동정책 예산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예산편성을 강조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9월 4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남양주지점 이전식에 참석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금융 파트너"라며



01



02

"금융 소외계층에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용한 의원(국힘, 성남8)은 9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2027년도 경제 분야 출연 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공공기관의 예산 구조를 점검했다. 정용한 의원은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출연금 편성 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장윤정 부위원장(더민주, 안산3)은 9월 9일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정책 홍보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훌륭한 민생안정대책을 펼치더라도 알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책 수혜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준모 의원(더민주, 안양4)은 9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 평가와 전문성을 점검했다. 박준모 의원은 "사업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더 효과적인 위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03



04



05

01.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2026. 9. 9.)
02.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남양주 지점 이전식 참석(2026. 9. 4.)
03.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
04.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
05.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

안전행정 위원회

현장에서 살피고 예산으로 지키는 도민 안전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산업현장 재난 대응체계 점검
- 소방, 재난 예방 등 필수 안전 예산과 경기 북부 현안 살펴



양경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평택1)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 의원들은 9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대규모 산업시설의 안전관리와 화재 등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의원들은 자체 소방·방재 시스템과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양경석 위원장(더민주, 평택1)은 "도내 주요 산업시설과 재난 취약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찬 부위원장(더민주, 용인7)은 9월 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청사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로 청사 증축과 소방 장비 배치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했다. 김용찬 부위



01



02

원장은 “소방청사는 소방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도민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며 76개 소방관서의 소유 관계와 시설 여건을 점검해 정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충식 부위원장(국힘, 포천1)은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응급복구비와 안전관리사업, 경기 북부 발전 정책 등을 살폈다. 윤충식 부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더민주, 수원7)은 9월 4일 ‘경기도 전통식품 산업 육성 연구회’ 출범 준비 간담회에서 전통식품 명인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종현 의원은 “연구회의 출발점은 현장이고, 목표는 정책”이라며 “판로 확대와 지역 농산물 연계, 생산 기반 강화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의원(더민주, 부천6)은 9월 8일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화성소방서 마도화학구조119안전센터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희 의원은 “전문적 지식과 장비, 숙련된 대응 능력이 필요한 화학 사고에 대비해 시설과 인력, 장비, 기술, 훈련을 하나의 대응 체계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03



04



05

01.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현장 방문(2026. 9. 10.)
02. 김용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7)
03. 윤충식 부위원장(국민의힘, 포천1)
04. ‘경기도 전통식품 산업 육성 연구회’ 출범 준비 간담회(2026. 9. 4.)
05.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도민 체감 정책과 문화·체육 현안 집중 점검

- 문화·체육·관광 예산 감액에 따른 현장 영향 살펴
- 전국체육대회 국비 확보, 국가유산·스포츠 인권 등 제도 개선



채신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포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채신덕)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용인 경기뮤지엄파크, 경기국악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채신덕 위원장(더민주, 김포2)은 "문화와 예술, 체육과 관광은 도민이 일상에서 행복을 체감하는 가장 직관적인 창구"라며 "서류 너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며 도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감동 의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채신덕 위원장은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신덕 위원장은 "모든 정책과 예산은 결국 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라며 "문화·예



01


02

술·체육·관광 분야의 사업을 예산 절감 대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오수 부위원장(국힘, 수원9)은 9월 7일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 사업 예산의 대규모 감액을 지적했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도민 체감 사업, 지역 관광과 상권을 직접 연결하는 로컬 콘텐츠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병숙 의원은 "문화·자연·무형유산의 통합적 심의체계를 마련해 국가유산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승기 의원(더민주, 남양주3)은 9월 4일 상임위 회의에서 스포츠인권센터의 위탁 운영이 늦어져 연초에 학생 선수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승기 의원은 "계약과 공모 일정을 앞당겨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중단 없이 운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03



04



05



06

01·02. 용인 경기뮤지엄파크 등 현장 방문(2026. 9. 8.)
03.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2026. 9. 7.)
04.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9)
05.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
06. 김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농정해양 위원회

농업 현장 찾아 지속 가능한 농정 해법 모색

- 친환경농산물 유통, 쌀 산업 등 농업 현장 운영 실태 점검
- 농정 예산, 학교급식, 친환경농업 등 현장 체감 정책 살펴



서광범 위원장
(국민의힘, 여주1)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서광범)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경기유기농문화체험센터,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반려마루(여주) 등 주요 농정·축산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친환경농산물 수급·유통과 농가 판로 확보,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살피고 현장 의견의 정책 반영 방법을 모색했다.

서광범 위원장(국힘, 여주1)은 "현장 의견과 애로 사항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더민주, 고양10)은 9월 8일 농정해양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RE100 태양광 설치 공사 예산이 98.8% 감액된 문제를 지적했다.



01


02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RE100*을 강조해 온 만큼 공공 부문부터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라며 법적 의무 이행과 사업 연속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RE100: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

김성태 의원(더민주, 용인2)은 9월 2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용인시화훼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농정 예산과 농지 전수조사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계속 제안하고, 의회는 그 목소리를 제도와 예산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1)은 9월 7일 농정해양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친환경 농가 피해를 점검했다. 이선구 의원은 “예산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준비를 바탕으로 편성돼야 하며, 농업정책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03



04

01. 반려마루(여주) 현장 방문(2026. 9. 10.)
02.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
03.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용인시화훼연합회 정담회(2026. 9. 2.)
04.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

보건복지위원회

필수 보건·복지사업 예산과 현안 점검

- 추경예산안 심사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 살펴
- 장애인 돌봄, 복지종사자 처우, 필수 보건사업 대책 촉구



김동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보건·복지 분야의 필수사업을 점검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김동규 위원장(더민주, 안산1)은 9월 7일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복지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만큼 사업 감액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필수 복지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승호 부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9월 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아동과 가족이 예산 부족으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증가하는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1



02

국은주 부위원장(국힘, 비례)은 9월 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 주요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일몰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복지 현장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명성숙 의원(더민주, 부천4)은 9월 7일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을 점검했다. 명성숙 의원은 “모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필수 보건사업”이라며 “감액 이후에도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되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미숙 의원(더민주, 하남4)은 9월 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사회복지사 웰빙보조비와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을 점검했다. 방미숙 의원은 “현장 호응이 높은 웰빙보조비를 종료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더 챙겨야 한다”라고 일률적 복지 지원 축소를 우려했다.



03



04



05

01.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2026. 9. 7.)
02.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
03.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04.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
05.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

건설교통 위원회

철도·도로 건설 현장 살피고 민생·안전 예산 점검

- 광역철도·국지도 건설 현장 및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점검
- 민자도로 통행료 의견청취, 도로·하천·대중교통 등 도민 체감 예산 집중 심사



고찬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용인9)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도봉~옥정선 광역철도와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건설 현장 등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을 보고받고,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점검했다.

고찬석 위원장(더민주, 용인9)은 "도재정상 감액 추경으로 민생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중심 예산 심사를 강조했다.

윤순옥 부위원장(국힘, 양평1)은 9월 9일 상임위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며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형평성을 점검했다.



01



02

윤순옥 부위원장은 “같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철환 부위원장(더민주, 김포4)은 9월 9일 추경안 심사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 감액을 집중 점검했다. 김철환 부위원장은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며 감액된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복원하고 선제적 예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9)은 9월 9일 상임위에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 감액과 상습 침수 구간 문제를 살폈다. 오진택 의원은 “도민 안전 예산은 집행률이나 예산 실링(상한선)을 핑계로 기계적 감액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상습 침수 구간의 배수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성복임 의원(더민주, 군포1)은 9월 9일 상임위에서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교량 안전진단 예산 등을 점검했다. 성복임 의원은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03



04



05

01. 도봉~옥정선 광역철도 건설 현장 방문(2026. 9. 7.)
02.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1)
03.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04.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9)
05.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시환경 위원회

주거 안정과 민생 현안 해법 집중 점검

- 부동산거래 안전망,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11개 안건 심사
- 주거복지·생활안전 예산 살피고 합리적 재정 분담 촉구



이홍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화성1)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는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11개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이홍근 위원장(더민주, 화성1)은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도민이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01



02



03



04

이혜원 부위원장(국힘, 양평2)은 9월 8일 상임위에서 도 자체 사업의 높은 시·군비 부담으로 사업이 취소·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와 시군 간 재정 분담 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도비 보조율과 사업 설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창열 부위원장(더민주, 구리2)은 9월 8일 회의에서 민생·안전 관련 사업의 감액을 점검했다. 임창열 부위원장은 민생과 안전에 관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라며 “주거복지와 생활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임유진 의원(더민주, 고양1)은 9월 8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과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예산 감액 문제를 살폈다. 임유진 의원은 “주거복지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과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01.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2026. 9. 4.)
02.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03. 임창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리2)
04.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

미래과학협력 위원회

미래산업 성장 위한 예산·제도 기반 집중 점검

- AI, 연구개발, 수출 기업 지원 등 필요 사업 예산 증액
- 반도체산업 지원체계 정비하고 미래기술정책 실효성 높여



김태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화성5)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김태형)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제393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을 집중 심사했다. 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 수요를 살펴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12억 원, GRRC(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8억 원,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11억 5,000만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4억 4,562만 원 등을 증액했다. 특히 위원회는 9월 8일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12대 위원회 제1호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며 미래산업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김태형 위원장(더민주, 화성5)은 "도민과 기업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라고 밝혔다.



01

01. 제12대 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단체사진(2026. 7. 23.)
02.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03.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
04.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
05.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오남석 부위원장(국힘, 비례)은 9월 7일 AI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을 점검했다. 오남석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모두의 AI'와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마련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무역 위기 대응과 전기차 보급, 청년 AI 정책 등 주요 사업의 예산과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윤도희 의원(더민주, 안양3)은 국제협력국 소관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예산 감액을 지적했다. 윤도희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수출 현장의 버팀목이 되는 기업의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유지·복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오민용 의원(더민주, 하남1)은 전기차 보조금의 반복적인 추경 문제를 지적했다. 오민용 의원은 "도민들께서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시군의 수요를 취합하는 경기도에서 대수와 예산 간 괴리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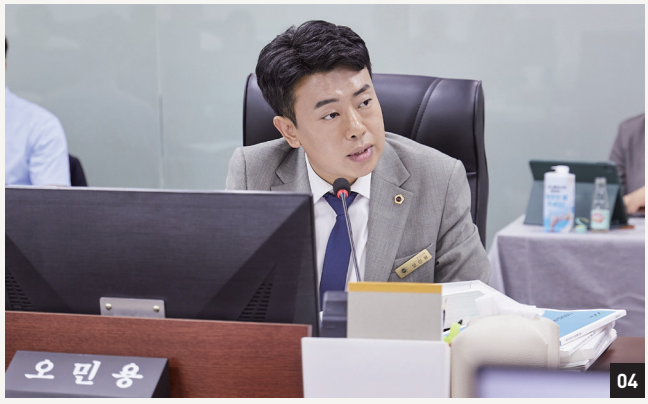
서인하 의원(더민주, 비례)은 청년 AI 정책과 AI국의 역할을 점검했다. 서인하 의원은 "사업이 삭감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학교밖청소년과 취업준비생 등 정책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AI국이 관련 사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02



03



04



05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민생·복지 안전망 지키는 예산 집중 점검

- 청년, 돌봄·여성 청소년 등 필수 사업 예산 조정
- 재정 효율성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공백 방지 주문



김용성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광명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9월 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등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김용성 위원장(더민주, 광명4)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안전망이 훼손되지 않고 취약계층 관련 사업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미래교육 파주·양평캠퍼스,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등 산하기관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했다. **김용성 위원장**은 "현장 목소리를



01



02

수렴한 의견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9월 4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여성, 돌봄, 이주민 관련 사업의 예산 감액을 점검했다. 성기황 의원은 "각 부서가 담당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사업은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의원(더민주, 평택2)은 9월 4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환금 세입 반영 지연과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김명숙 의원은 "감액과 사업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해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최순자 의원(더민주, 비례)은 9월 4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육 예산의 방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최순자 의원은 "보육 예산은 어른의 편의가 아니라 인간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인 아이들의 권리와 발달을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03



04



05

01.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2026. 9. 4.)
02.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현장 방문(2026. 9. 8.)
03.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04.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
05.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기획 위원회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 현장 현안 집중 점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에 공동 대응
- 유보통합, 이주 배경 학생 지원 등 현장 목소리 청취



국중범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남4)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국중범)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와 경기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다.

국중범 위원장(더민주, 성남4)은 9월 1일 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며 법정교부율 20.79% 유지와 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했다. 국중범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했다.

정연일 의원(더민주, 고양5)은 8월 31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연일 의원은 국적 및 기관에 따른 지원 차이를 지적하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해법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01


02


03



04


05

장승희 의원(더민주, 구리1)은 9월 1일 농수산생명과학국 관계자들과 함께한 정담회에서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가 도시형 시군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평가 트랙을 다양화하고 도농 상생 인프라를 확충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영훈 의원(더민주, 시흥3)은 9월 2일 시흥시가족센터에서 열린 다문화정책 현장 정담회에서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결손과 진로 문제 등을 살피고 "이주 배경 아동은 다문화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실효성 있는 정착·교육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부위원장(더민주, 오산1)은 9월 2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과 정담회를 열었다. 김영희 부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도 차이로 인한 혼선을 지적하며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기자회견(2026. 9. 1.)
02.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정담회(2026. 8. 31.)
03. 농수산생명과학국 관계자 정담회(2026. 9. 1.)
04. 다문화정책 현장 정담회(2026. 9. 2.)
05.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정담회(2026. 9. 2.)

교육행정 위원회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집중 점검

- 학교 신설·증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 과밀학급 해소, 유휴 교실 활용부터 AI 교육까지 현장 해법 모색



김성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양1)

김영훈 의원(더민주, 화성3)은 9월 2일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학교설립과 관계자들과 동탄 지역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 김영훈 의원은 "지금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기본"이라며 총학급 수 산정과 교원 정원 확충을 연계해 과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심상록 의원(더민주, 광명1)은 9월 3일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RAS교육과* 관계자들과 만나 광명 지역 학교 유휴 교실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심상록 의원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 교육 시범도시 선정, 인센티브 부여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해 RAS 교육을 연계해 줄 것"을 주문했다.

*RAS교육과: 독서(Reading)·예술문화(Arts)·스포츠(Sports)를 학교 교육과정 및 일상 속 교육활동과 연계하는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도교육청 부서


01


02

정석원 의원(더민주, 양주2)은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양주 주원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의 예산과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정석원 의원은 “개교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장경임 의원(더민주, 비례)은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 도궁초등학교 증축사업 을 점검했다. 장경임 의원은 “광주 지역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공동주택 입주 전 시설 준공과 위생적 급식 시설 조성을 위한 공정관리를 당부했다.

손성익 의원(더민주, 파주3)은 9월 7일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현장정책회의에서 AI 교육과 시설 상황을 점검했다. 손성익 의원은 “직급별·업무별로 실제 처리하는 문서와 업무 절차를 놓고 훈련하는 실무 밀착형 과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03



04


05

01. 동탄 지역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 협의 정담회(2026. 9. 2.)
02. 광명 지역 학교 유휴 교실 활용 방안 논의 정담회(2026. 9. 3)
03.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
04. 장경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05.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도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 2026. 7. 24.~9. 7. 배포한 보도자료 게재



* 용인상담소 *

◉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1)



"고림·남곡지구 대중교통 불편, 대체 수단부터 마련해야"

엄교섭 의원(더민주, 용인11)은 8월 27일 용인상담소에서 주민 대표와 용인시, 운수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고림·남곡지구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버스 증차와 막차 시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엄교섭 의원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리게 할 수 없다"라며 "순환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과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배차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 화성상담소 *

◉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



"동탄 중·고교 과밀학급, 지금 가능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김영훈 의원(더민주, 화성3)은 8월 13일 화성상담소에서 김영수 의원(더민주, 화성8)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동탄 지역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의원은 "2032년 이후 과밀학급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지금 학생들이 피해를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관계 부서가 협력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화성 철도망 확충, 미래 수요까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신미숙 의원(더민주, 화성4)은 8월 24일 화성상담소에서 화성특례시의원, 시 관계자들과 주요 철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화성의 성장에 발맞춰 앞으로 필요한 철도망까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분당선 연장과 경기 남부 동서 횡단선 등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성남상담소 *

◉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도시농업·반려동물 아우르는 생활형 농정 확대해야"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2)은 8월 11일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시농업과 반려동물, 시민농원, 지역 먹거리 등 생활 밀착형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시민들이 흙과 식물,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는 커진다"라며 "성남의 특성에 맞는 도시형 농정사업을 발굴하고 도비 지원과 정책 연계 방안을 적극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장애인복지 현장, 예산·정책으로 실질적 변화 이끌 것"

문승호 의원(더민주, 성남1)은 8월 31일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시설 운영 예산 확보와 중증장애인 주간 이용 전담반 운영 기준 개선,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의 의제를 다뤘다. 문승호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부천상담소 *

◉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실질적 권한 보장해야"

이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은 8월 18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 의견을 청취했다. 이재영 의원은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 교육을 지원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조례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부천상담소 ✻

◉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외국인 자녀도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야"

박순희 의원(더민주, 부천8)은 8월 24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만나 외국인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순희 의원은 "아이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라며 "현장의 의견을 살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남양주상담소 ✻

◉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 ◉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합당한 예우로 보답해야"

이건희 의원(더민주, 남양주1)과 정현미 의원(더민주, 남양주8)은 8월 11일 남양주상담소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남양주시지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건희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학생과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나라 사랑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 안산상담소 ✻

◉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생태계 조성해야"

박은경 의원(더민주, 안산6)은 8월 5일 안산상담소에서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지역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직업교육 생태계가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해 안정적으로 정주하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평택상담소 *

◉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



"안전한 대중교통 위해 현장 중심 협치 필요"

한승훈 의원(더민주, 평택6)은 8월 5일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버스운영팀 관계자 및 버스기사 등 현장 관계자와 대중교통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버스 노선 개편과 법정 휴게 시간 보장, 화장실 이용 환경 및 근로 여건 개선 방안 등을 건의했다. 한승훈 의원은 "행정기관과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간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세밀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기준"

안계명 의원(더민주, 평택5)은 8월 12일 평택상담소에서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서평택 지역 학교시설 개선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냉난방기 교체와 옥상 방수, 승강기 설치·교체 등 주요 사업과 향후 개선 수요를 살폈다. 안계명 의원은 "노후 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기준으로 세심하게 살펴 시행해야 한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가 시설 개선에 반영되도록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양상담소 *

◉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



"학생 안전 위한 학교 환경, 통학 여건 개선해야"

최경순 의원(더민주, 안양2)은 8월 7일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학교 환경 개선과 안양해솔학교 진입로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최경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과 원활한 통학 여건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안양시와 경기도,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안양상담소 *

◉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노후 공영주차장, 현장 점검에서 보수까지 꼼꼼히"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은 8월 12일 안양시 관계자들과 호계동 노외공영주차장을 찾아 시설물의 균열과 누수 상태를 점검하고, 20년 이상 된 주차장의 포장재와 방수층 손상, 천장 누수와 부식 등의 보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사진이나 보고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만큼 실제 보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점검 결과와 보수 계획,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 학교 수용 여건 살펴야"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은 8월 12일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명학동·안양동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 및 학교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개발사업과 입주 시기에 따른 학생 수 변동, 주변 학교의 통학 구역과 수용 현황 등을 살폈다. 김성수 의원은 "학교 수용 여건과 통학 환경은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과 직결된다"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흥상담소 *

◉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



"노후 산업도시, 주거·산업·일자리 결합한 공간으로"

이성원 의원(더민주, 시흥5)은 7월 31일 시흥시·시흥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정왕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성원 의원은 "시화국가산업단지 고도화와 앵커 기업 유치, 광역교통 개선 등을 정비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며 "노후 산업도시를 단순한 주거 중심 정비가 아닌 주거·산업·일자리가 결합된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파주상담소 ✻

◉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함께하는 안정적 보육망 필요"

손성익 의원(더민주, 파주3)은 8월 1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지역 보육 생태계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손성익 의원은 "국공립 시설 확충뿐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과의 균형이 유지돼야 튼튼한 보육망이 완성된다"라며 "보육 생태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양육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포상담소 ✻

◉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 ◉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



"바둑으로 경기 북부의 상생과 평화를"

최명진 의원(더민주, 김포1)과 채신덕 의원(더민주, 김포2)은 8월 27일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바둑협회 관계자들과 김포·고양·파주가 함께하는 '평화바둑대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바둑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스포츠"라며 "평화바둑대회를 통해 경기 북부의 상생과 평화 메시지를 전국에 알리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의정부상담소 ✻

◉ **국은주** 의원(국민의힘, 비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국은주 의원(국힘, 비례)은 8월 12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정담회를 열었다. 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현장 종사자가 전문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역설했다.

* 의정부상담소 *

◉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노후 노인복지관,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해야"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은 8월 19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와 노후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관은 냉난방 설비와 외벽 등의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영봉 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이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버스정책, 예산보다 시민 체감이 기준"

김지호 의원(더민주, 의정부3)은 8월 21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광역버스 혼잡 완화, 스마트 버스 정류소 설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지호 의원은 "공공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역마다 재정 여건과 노선 운영 환경이 다른 만큼 현재의 분담 방식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경기도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학생 통학 안전, 무엇보다 우선해야"

조병진 의원(더민주, 의정부4)은 8월 25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영석고등학교 학부모회 관계자들과 후문 앞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학부모들은 횡단시설 부족에 따른 학생과 주민의 무단횡단 위험을 설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병진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의정부상담소 ✻

◉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



"의정부병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공백 대책 마련해야"

유수연 의원(더민주, 의정부1)은 8월 31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조와 정담회를 가졌다. 유수연 의원은 "이전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의에 앞서 현재 병원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료진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지원체계 구축, 시설 개선 및 이전 전후 공공의료 공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광주상담소 ✻

◉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



"공공재산, 주민 편의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김미경 의원(더민주, 광주4)은 8월 13일 광주상담소에서 지역 주민과 도곡초등학교 인근 학교용지 활용 및 클린 하우스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김미경 의원은 "해당 주차장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공공재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만큼 주민 편의를 높일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와 학부모, 교육지원청이 소통해 다양한 활용 방안이 도출되도록 광주시 및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



"위험도로 구조 개선 속도 높여 도민 안전 지켜야"

최보라 의원(더민주, 광주1)은 8월 18일 광주시 남종면 지방도 342호선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경기도 관계자들과 위험도로 구조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인 만큼 설계와 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착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 하남상담소 *

◉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



"누리나눔센터, 장애인·어르신 위한 활력 공간으로"

방미숙 의원(더민주, 하남4)은 8월 10일 하남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현장 정담회를 갖고 누리나눔센터 리모델링과 이용자 쾌적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특별보조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방미숙 의원은 "다양한 창작·신체 활동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어르신의 활력 있는 일상을 돕는다"라며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장애인과 어르신,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필요한 정책을 하나씩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 ◉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



"학교별 수요 반영한 교육 환경 개선 추진해야"

오민용 의원(더민주, 하남1)과 강성삼 의원(더민주, 하남2)은 9월 4일 하남상담소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2027년 학교 환경 개선 협력사업 등을 논의했다. 오민용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성삼 의원은 "학교마다 필요한 시설과 환경이 다른 만큼 현장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양주상담소 *

◉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



"광역교통망 확충과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집중"

최수연 의원(더민주, 양주3)은 8월 13일 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관계자들과 공공입찰 실태조사 및 양주시 건설·교통 현안을 점검했다. 최수연 의원은 GTX-C, 서울~양주 고속도로,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주요 교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며 "양주시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양주상담소 ✻

◉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



"대안교육 전환 과정에서도 학생 학습권 지켜야"

정석원 의원(더민주, 양주2)은 8월 14일 양주상담소에서 학부모들과 대안교육기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단절과 학년 배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석원 의원은 "행정 절차나 기관 전환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중단하거나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며 "적법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자문과 소통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광명상담소 ✻

◉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보육 현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은 7월 30일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원아 감소, 유보통합, 보육교사 수급 및 운영비 부족 등의 보육 현안을 논의했다. 김용성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다루는 보육은 매우 중요한 영역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미래 용수 수요까지 고려한 안정적 공급체계 필요"

유종상 의원(더민주, 광명3)은 8월 20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관계자들과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상황 및 용수 공급 대책을 점검했다. 유종상 의원은 "정수장은 시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현재 사업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물론 미래 용수 수요까지 고려해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광명상담소 ✻

◉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 개선 중요"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8월 31일 광명상담소에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최민 의원은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군포상담소 ✻

◉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친환경 공공급식, 현장 편의 높여 참여 확대해야"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은 8월 14일 군포상담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미숙 의원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현장에서 이용하기 어렵다면 지속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라며 "영유아기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산상담소 ✻

◉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장 중심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김영희 의원(더민주, 오산1)은 8월 26일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 유아 발달 지원 및 보육 현장의 AI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어린이집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영유아 맞춤형 지원에도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꾸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 이천상담소 ✻

◉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이천 주요 현안, 시민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1)은 8월 5일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도시, 주택, 건축, 환경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일중 의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과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



"모가면 54홀 파크골프장, 원안 추진 위해 노력"

김인영 의원(더민주, 이천2)은 8월 5일 이천상담소에서 모가면 파크골프협회 회원들과 공공체육시설의 54홀 원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인영 의원은 "파크골프장은 주민 건강과 여가 문화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이천시도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안성상담소 ✻

◉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 ◉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



"장애 학생 생활체육 참여 기회 더욱 넓혀야"

이주현 의원(더민주, 안성1)과 백승기 의원(더민주, 안성2)은 8월 19일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현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편리하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백승기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구리상담소 *

◉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특수교육 지원, 지역에 따른 소외 없어야"

장승희 의원(더민주, 구리1)은 8월 19일 구리상담소에서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구리시지회와 특수학급 수요에 대응한 복합 교실 증설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장승희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어디에 살든 지역적 요인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 교실 확대 현황을 점검하고 조례 정비와 예산 반영을 통해 현장의 요청이 제도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



"노후 구리하수처리장 현대화·지하화 속도 내야"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8월 21일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구리시 관계자들과 구리하수처리장 현대화·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임창열 의원은 "3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시설인 만큼 변화된 하수처리 기준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지하화를 포함한 시설 현대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포천상담소 *

◉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마을공동체, 자립·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해야"

윤충식 의원(국힘, 포천1)은 8월 18일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충식 의원은 "공동체 활동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 기반과 자생력을 키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포천상담소 ✻

◉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포천 역사·문화·자연 자원 연계해 지역 활력 높여야"

최순자 의원(더민주, 비례)은 8월 25일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관계자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의 역사·문화 자원 및 관인면의 농촌 체험 등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최순자 의원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 양평상담소 ✻

◉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 ◉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양평 주요 현안, 현장 소통으로 실질적 해법 마련해야"

윤순옥 의원(국힘, 양평1)과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은 8월 27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관계자들과 환경, 도시, 교통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및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윤순옥 의원은 "도로와 교통망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지원되도록 경기도와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여주상담소 ✻

◉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



"마을공동체 지원 격차 줄이고 안정적 기반 마련해야"

유필선 의원(더민주, 여주2)은 8월 19일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들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어려움과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유필선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민간 재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및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주상담소 ✻

◉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



"민간과 협력하는 경기도형 공공동물의료체계 필요"

서광범 의원(국힘, 여주1)은 8월 27일 여주상담소에서 경기도수의사회 관계자들과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광범 의원은 "공공이 직접 운영하기보다 민간 동물병원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동두천상담소 ✻

◉ **안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장애인이 일상에서 편하게 운동할 체육 기반 넓혀야"

안시현 의원(더민주, 동두천1)은 8월 3일 장애인 체육 기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안시현 의원은 "반다비체육센터가 장애인이 일상에서 편하게 운동하고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며 "수중 재활의 장점을 살리면서 수영을 원하는 장애인의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 연천상담소 ✻

◉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위험도로 직접 살펴 주민 안전 위한 해법 마련"

윤종영 의원(국힘, 연천)은 8월 24일과 25일 연천 초성리와 북삼리 도로 현장을 찾아 주민 불편과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윤종영 의원은 "도로는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민원을 책상에서만 검토하지 않고 위험 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실질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직원이 행복해야 의정 지원에도 힘이 실립니다

진용복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도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과 부의장을 지낸 진용복 사무처장이 이번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자리에 섰다. 의원과 사무처의 역할을 모두 아는 진용복 사무처장은 배려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발 앞서 의정 지원에 나서는 사무처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 강나은 **사진** 박기현

막내 직원부터 국장까지, 배려로 통하는 사무처

진용복 사무처장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가치는 소통이다. 막내 직원부터 의정국장까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통이 이뤄져야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고 믿는 진용복 사무처장은 그 소통의 전제는 배려라고 강조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배려심이 없으면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필할 수 없고, 직원 간에도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직원들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의정활동 지원도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진용복 사무처장의 소신이다. 이에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그 에너지가 의정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고 있다. 이런 마음은 새로 의회를 찾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최근 청년 인턴 20명을 만난 자리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만큼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지시만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청년만의 감각으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여기서 좋은 경험을 쌓으며 꿈을 꿔보라고요."

관행을 넘어, 의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먼저

취임사에서부터 "관행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밝힌 진용복 사무처장은 전임자의 사업 계획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는 방식부터 경계한다. 이렇게 해서는 사업의 목적도, 성과도 제대로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담당자는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팀장은 투입한 시간과 예산에 비해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분석해서 계속할지, 정리할지 거름망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방향이 어긋났는데도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은 이번 기회에 대청소하듯 정리하는 것이 진용복 사무처장의 구상이다. 아울러 의원이 요구한 뒤에야 준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원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해 자료와 조례로 뒷받침하는 선제적 의정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입법조사관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으니, 의원님들이 평소 대화나 발언에서 드러내는 관심사를 먼저 끄집어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드리는 선제적 의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진용복 사무처장은 배려로 하나 되고, 한발 앞서 움직이는 사무처라는 청사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Chapter 2



삶의 20



지나온 시간은 삶의 깊이가 됩니다.
계절이 깊어질수록
나무는 한 해의 시간을 나이테에 새깁니다.
햇살 좋은 날도 비바람을 견딘 날도
겹겹이 쌓여 한 그루의 나무를 이루듯
도민의 삶도 그렇게 깊어갑니다.
웃었던 순간과 애쓴 하루 잠시 쉬어간 시간까지
오늘도 도민의 삶에
따뜻한 한 겹의 시간이 쌓여갑니다.

길

과학과 예술 사이, **모녀의 가을 데이트**





잠깐 한눈팔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귀한 가을이 아까웠던 임기영 씨가 둘째 딸 박정대 씨와 초가을 데이트에 나섰다. 2년 넘게 과천에 살았는데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들러 첨단 과학을 살펴보고 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운 모녀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서로를 향해 청명한 미소를 지었다.

글 강진우 **사진** 고평주

QR코드를 검색하면 임기영 도민님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증손주의 미래를 그려본 과학 여행

이제 막 가을 문턱에 들어선 과천은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높고 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 사이로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한 대가 국립과천과학관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이날의 주인공 임기영 씨와 딸 박정대 씨가 환한 웃음과 함께 정문으로 다가섰다. "남양주에 사는 둘째가 매주 한 번씩 저를 보러 오는데, 오늘이 마침 그날이에요. 신나는 마음에 며칠 전 전화를 걸어 '딸, 오랜만에 엄마랑 데이트 다녀오자'고 했죠."(웃음)

두 사람의 첫 번째 나들이 장소를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정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박정대 씨의 손주, 다시 말해 임기영 씨의 증손주가 얼마 전 과학 영재로 선발됐기 때문이다.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람의 세계가 궁금해지는 법. 모녀는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Information

국립과천과학관

다채로운 과학기술을 생생하게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관이다.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뿐 아니라 돔 스크린을 통해 밤하늘을 살펴보는 천체투영관, 나로호 모형, 공룡공원 등을 갖췄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과학 문화 행사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과천시 상하벌로 110
02-3677-1500

위해 기꺼이 국립과천과학관 로비로 발을 내디뎠다.

먼저 미래상상SF관에 들어선 이들의 눈이 금세 휘둥그레졌다. 4차 산업혁명을 발판 삼아 변화할 미래의 세상과 첨단 과학기술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모녀를 맞이한 것. 각종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 팔을 조작해 보고, 최근 여러모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면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모녀의 눈빛에는 후대가 살게 될 미래가 지금보다 한결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한국 과학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과학 위인들의 활동상을 한데 모아놓은 명예의 전당 전시관을 둘러보던 임기영 씨가 기대감 섞인 목소리로 딸에게 말했다. “우리 증손주 열심히 공부하면 이분들처럼 될 수 있겠지?” 그 말에 박정대 씨가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다. “아직 먼 이야기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2층에 자리한 자연사관과 한국과학문명관에서도 연신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거대한 공룡 화석, 인류의 진화 과정 등을 둘러본 뒤에는 “우리도 이 거대한 지구의 일원”이라는 감상평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전통 과학 전시물을 관람하다가 만난 자격루를 보며 임기영 씨가 “꼭 뒤주같이 생겼다”라고 하자, 딸이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이 와중에도 중간중간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 임기영 씨. 아이들을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이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우리 증손주와 잘 어울리고 화합해 더욱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작품 앞에서 나눈 모녀의 마음

즐거운 수다와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친 일행은 오후 행선지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으로 향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은 가봤지만 정작 과천관 방문은 처음이라는 임기영 씨의 말에, 딸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장난스러운 말투로 "저는 세 번 정도 가봤지요!" 하며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 그러면서 뒤이어 진심 담은 말을 덧붙였다. "이번에는 엄마와 같이 가니 더 특별한 관람이 될 것 같아요."

로비를 거쳐 전시실로 들어가는 길, 백남준 작가의 작품 '다다익선'이 임기영 씨의 눈길을 끌었다. CRT 텔레비전 1,003대로 제작한 높이 18.5m의 비디오 타워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박정대 씨가 작품의 의미와 상영되는 영상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했다. 임기영 씨는 딸의 맞춤형 설명에 만족한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Information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의 근현대 미술과 세계 미술의 흐름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미술관이다. 과천의 대표적 가을 나들이 명소로, 미술관을 품은 청계산의 수려한 경치와 3만 3,000m² 규모의 야외조각공원, 우리나라 전통 요소를 가미한 독특한 외관의 건물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과천시 광명로 313
02-2188-6000

1층 원형전시실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수집한 국제미술 소장품 중 엄선한 작품 44점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파블로 피카소, 클로드 모네, 페르난도 보테로를 비롯한 해외 작가 33인의 작품 사이사이를 오가며 작품에 대한 인상, 감상평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았다. 휠체어를 밀던 박정대 씨가 문득 "작품 사이의 간격과 보행로가 넓고 소개 글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붙어 있어 엄마와 함께 관람하기에 정말 좋다"라며 미술관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전했다.

원형전시실 맞은편에 자리한 1·2전시실에서는 광복 후 현재까지 이어져 온 한일 미술 교류의 역사와 이를 통해 탄생한 작품들을 조망하는 전시가 한창이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격동의 20세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온 임기영 씨는 유독 이 전시실에 오래 머물며 딸과 함께 옛 기억을 반추했다. 한 일본 여성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골똘히 감상하며 상념에 잠기기도 했다.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많은 감정이 미술 작품을 통해 느껴져요. 게다가 궁금한 점은 딸이 잘 설명해 주니 더욱 좋네요. 함께 오길 정말 잘했습니다."

2·3층 전시실의 수많은 작품을 느긋하게 감상한 모녀가 이윽고 미술관을 나섰다. 기온은 제법 올랐지만 하늘은 오전 모습 그대로 높고도 청명했다. "엄마, 우리 조만간 또 데이트해요!" 딸의 힘찬 목소리에 임기영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연한 초가을 날씨와 잘 어울리는 가슴 따뜻한 장면이었다.



밤 11시의 의자

늦은 밤,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던 세탁방 앞 낡은 의자 하나.
그 소박한 풍경에서 시작된 주민의 목소리와 더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을 이야기로 풀었다.

글 강나은 **일러스트** 챗GPT

<1화> 세탁물 없는 손님



밤 10시 58분. 오래된 주택가 골목의 상점은 거의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그 사이에서 작은 셀프 세탁방만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세탁방 앞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하린이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손에는 세탁물이 없었다.

"사장님, 여기 잠깐만 있어도 되죠?"

미정은 세탁기 사이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세탁 안 해도 의자는 도망가지 않아요."

하린은 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시선은 세탁방이 아니라 골목 안쪽을 향해 있었다.

"응, 나 세탁방 앞. 여기까지 와줘."

미정은 하린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보다는 이미 몸에 밴 습관 같았다.

며칠 뒤 같은 자리, 이번에는 성호가 앉아 있었다. 오토바이 헬멧을 옆에 내려놓은 채였다. 통화를 끝내고는 골목 쪽을 한 번 힐끔 보았다. 멀리서 다른 주민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벽시계가 10시 47분을 가리킬 때 한 사람이, 11시 13분을 가리킬 때 다른 사람이, 11시 36분을 가리킬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잠깐씩 앉았다 일어났다.

<2화> 어두운 데 말고



어느 날 밤, 미정은 쓰레기봉투를 들고 골목 안쪽으로 몇 걸음 걸어 들어갔다. 세탁방에서 네다섯 걸음만 멀어져도 얼굴에 닿던 빛이 순식간에 옅어졌다. 불이 꺼진 건 아니었다. 분명히 저 앞엔 가로등 하나가 켜져 있었다.

"불빛은 있는데…."

미정은 중얼거리며 잠시 멈춰 섰다. 담장 모서리와 낡은 건물이 만든 그늘을 가로등 하나로 밝히지 못했다.

그때 앞서 걷던 한 주민이 골목 입구에서 잠깐 멈칫하더니 방향을 바꿔 큰길 쪽으로 되돌아갔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세탁방 앞 의자가 밝은 점처럼 보였다.

며칠 뒤 저녁, 몇몇 사람이 태블릿 PC를 든 채 골목을 걸어 다녔다. 지역 안전 환경 현장 조사를 하는 이들이었다. 실무자가 미정에게 다가와 물었다.

담장 모서리와 낡은 건물이 만든 그늘을 가로등 하나로 밝히지 못했다.

"밤에는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어두운 데요?"

"네, 그런 곳부터 보려고요."

미정은 잠깐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어두운 데 말고, 사람들이 멈추는 데를 찍어보세요. 다들 밝은 데서 기다려요."

미정은 지도 위 세탁방 자리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다. 그다음엔 편의점 앞, 늦게까지 문을 여는 약국 앞에도 차례로 표시했다. 세 개의 점이 지도 위에 나란히 남았다.

<3화> 지도 위의 점 세 개



경기도의회 한 의원실. 책상 위에 지도가 놓여 있었다. 정책지원관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의원이 지도를 짚으며 물었다.

"이 점 세 개는 뭡니까?"

정책지원관이 답했다.

"사람들이 밤에 기다리는 곳입니다."

의원이 다시 물었다.

"위험한 곳이 아니라요?"

"위험하다고 느껴서 멈추는 곳에 가깝습니다."

의원은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며칠 뒤,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관련 업무 부서 책임자에게 같은 지도를 짚으며 물었다.

"가로등 개수만 보면 이 골목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도 관계자가 답했다.

"시군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도 설계 단계에서 더 살피겠습니다."

그 뒤로 골목에는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조명 전문가가 와서 빛이 닿는 방향을 확인했고, 건물 모서리의 사각지대를 짚었고, 시야를 가리던 것들을 정리했다.

"여긴 밝기보다 이 모서리가 문제네요."

현장 실무자가 말하자, 지나가던 주민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여기 골목이 많이 어두워요."

그 뒤로 골목에는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조명 전문가가 와서
빛이 닿는 방향을 확인했고,
시야를 가리던 것들을 정리했다.

<4화> 비어 있는 의자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 미정은 유리문을 닦다가 무심코 밖을 보았다. 의자가 비어 있었다. 시계는 1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정은 유리창 너머로 골목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서던 하린이 이번엔 멈추지 않고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반대편에서는 성호가 헬멧을 든 채 걸어왔다.

자정 무렵, 미정은 세탁방 정리를 마치고 난 뒤 늘 지나던 갈림길 앞에 섰다. 평소엔 밝은 큰길 쪽으로 돌아가던 방향과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골목길이 그 앞에서 나뉘었다.

미정은 잠시 멈춰 섰다가 예전엔 피해 다니던 골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연속되는 조명 아래를 천천히 걸었다. 앞쪽에서는 다른 주민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이쪽이 훨씬 빠르긴 하지."

미정은 픽 웃었다.

세탁방 앞 플라스틱 의자는 텅 비어 있었다. 안에서는 마지막 세탁기 한 대가 천천히 돌고 있었고, 의자 뒤로 이어지는 골목엔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오갔다. 의자는 비어 있었다. 길이 환해졌기 때문이었다.

※ **알림** 이 소설은 작가의 창작 픽션으로, 상황과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의 실제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녀로 남은 엄마를 기억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하수임** 할머니

하수임 할머니는 딸 강희숙 씨와 사위 최삼성 씨 부부에게 늘 가까이에서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었다. 특히 사위에게는 장모를 넘어 그저 '엄마'였다. 오랜 세월을 곁에 머물렀지만, 하수임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지난날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끝내 낫지 않은 팔이 말로 다 하지 못한 세월을 대신 증언했다.

글 강나은 **사진** 고평주



나고야로 끌려간 열네 살 소녀

1930년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난 하수임 할머니는 1944년 열네 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 나고야에 강제로 끌려갔다. 그러고는 2년간 '위안부'로 모진 고초를 겪었다. 그 악몽 같은 시간은 종전을 앞두고 함께 지내던 친구와 배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 가까스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끝이 났다. 이후 하수임 할머니가 '위안부' 생활을 입에 올리는 일은 없었다. 그저 팔이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물음에 일본인들에게 맞아 부러졌다고 할 뿐이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뼈가 살갗을 뚫고 나와 있었어요. 보는 사람이 더 아플 지경이었죠. 팔을 붙잡고 끙끙 앓으시니 어떻게 그 고통을 모를 수 있겠어요. 눈에 띄는 곳이 팔일 뿐이었지, 다른 데도 얼마나 많이 맞으셨겠어요. 온몸이 아프셨겠죠."
먼 훗날 나눔의집에 가겠다는 말에 딸 강희숙 씨와 사위 최삼성 씨는 하수임 할머니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일상에 숨통을 틔운 짧은 외출

하수임 할머니는 매사에 조용하고 깔끔하셨다. 집 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흐트러짐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술이나 담배를 즐기지 않은 할머니의 유일한 낙은 이따금 경마장을 찾는 것이었다. 사위가 몰래 용돈을 쥐여주면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길을 나섰다. 강희숙 씨는 "쓸데없는 데 돈 쓴다"라며 나무라기도 했지만, 최삼성 씨의 마음은 달랐다.
"별다른 취미도 없고 경마장에서 돈을 많이 쓰시는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을 때 하시게 해드리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 짧은 외출이 하수임 할머니에게는 드물게 허락된 숨통이었던 셈이다. 이후 하수임 할머니는 종종 나눔의집을 찾으셨다. 최삼성 씨가 운전해 모셔다드리면, 할머니는 나눔의집에 머물며 다른 어르신들과 모임을 하고 함께 TV를 보다 돌아오시곤 했다. 이후에도 할머니의 일상은 조용하게 이어졌다. 강희숙 씨는 버스를 타고 오갈 만한 거리에서 꽃집을 하며 이틀에 한 번꼴로 어머니를 찾았고, 최삼성 씨는 근처 의료원에 다니시는 할머니의 병원길에 동행했다.

또렷한 기억, 쇠약해진 몸

하수임 할머니는 기억력이 좋아 나눔의집 초창기 할머니들의 성함까지 하나하나 또렷이 기억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2012년 여름에는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함께 가기로 했던 여수 엑스포 나들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강희숙 씨가 입원을 권



"계절마다 다른 옷과 모자, 목도리를 두른 소녀상을 볼 때면 최삼성 씨의 마음은 유독 무거워졌다."

하자 할머니는 비싼 간병비를 걱정하며 한사코 손을 내저었다. 2013년 새해에 "봄에 놀러 가겠다"라고 웃으며 약속했지만, 그해 3월 할머니는 부은 얼굴로 일어나 앉기도 힘들어하며 침대에 누워 계셨다.
2015년 하수임 할머니는 아예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으로 거처를 옮겨 남은 생을 보내셨다. 그러고는 2020년 5월 26일 아흔 해의 생을 뒤로하고 눈을 감으셨다.

소녀상에 남겨진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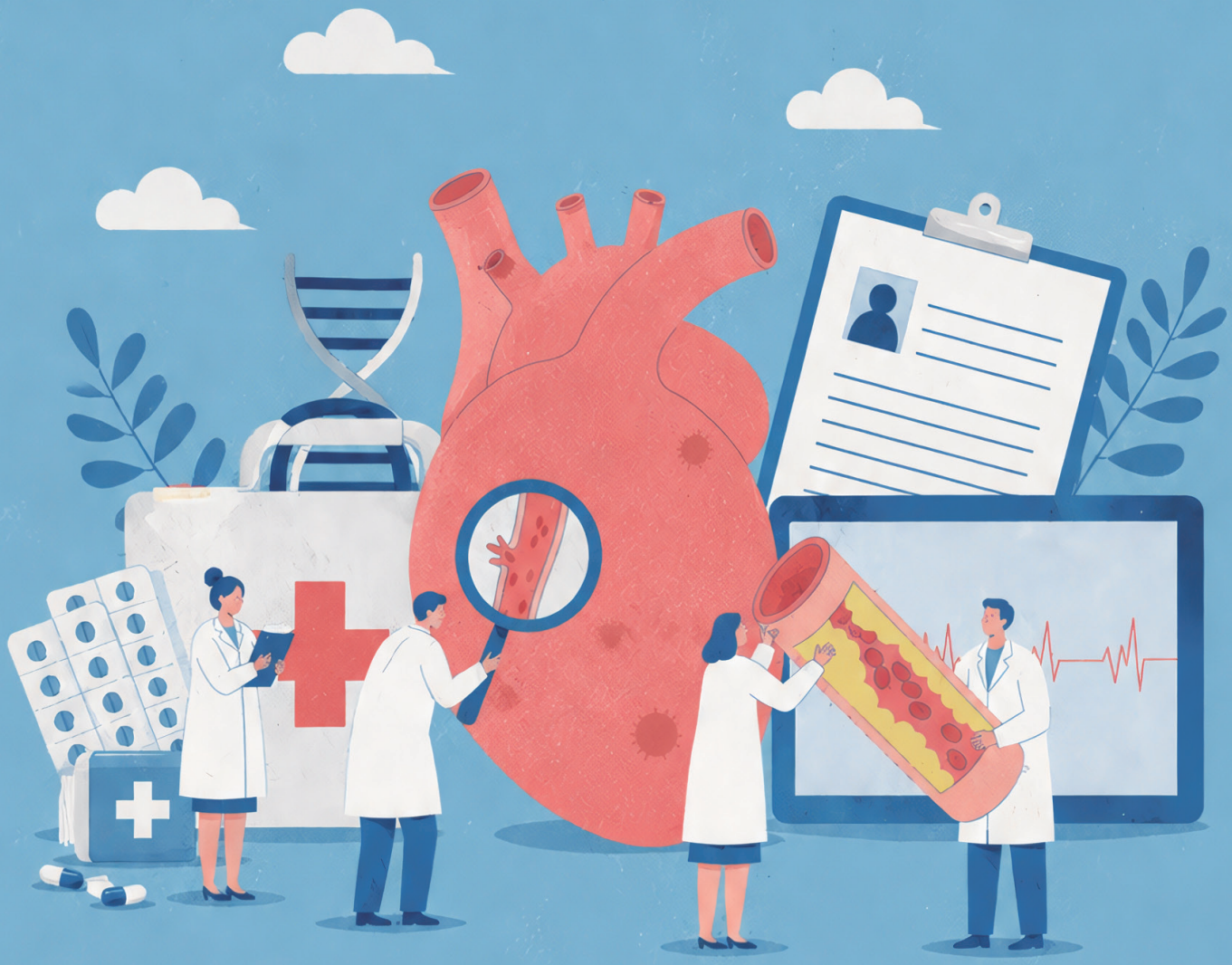
하수임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강희숙 씨와 최삼성 씨 부부에게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풀 방법이 없는 미제로 남았다. 특히 계절마다 다른 옷과 모자, 목도리를 두른 소녀상을 볼 때면 최삼성 씨의 마음은 유독 무거워졌다.
"겨울에는 두꺼운 모자와 예쁜 목도리를 둘러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모자를 씌워놓은 걸 보면 소녀상이 동상이 아니라 사람처럼 느껴져요. 소녀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모두 비슷하겠죠."
그렇기에 강희숙 씨와 최삼성 씨 부부는 소녀상이 시청 등 큰 건물뿐 아니라 작은 읍, 면, 학교 등에도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그것이 하수임 할머니의 모진 삶에 세상이 뒤늦게나마 건네는 위로이자, 할머니를 잊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건강검진표 속 숫자

혈관의 신호를 읽다

건강검진표의 숫자가 눈에 들어온다. 총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었더라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생활 습관을 돌아볼 때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매일 반복되는 식탁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글 유현경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내가 고지혈증이라고?"

건강검진표를 받아 든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고개를 갸웃한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지방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상태를 말한다. 요즘에는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뿐 아니라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 성분이다. 세포막과 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이지만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을 때는 문제가 된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중성지방 역시 에너지원으로 필요하지만 혈액 속 농도가 높아지면 비만과 대사질환, 심혈관질환에 걸릴 수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높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혈관에 부담이 된다. 오랫동안 지속되면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저녁 식탁을 조금만 바꿔보자

혈중 지질 수치는 식생활과 운동, 체중, 음주, 흡연 등 여러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활 습관을 꾸준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콜레스테롤 관리라고 해서 기름진 음식을 모두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삼겹살과 가공육, 튀김류, 버터와 생크림은 줄이고 생선과 두부, 콩류, 채소를 식탁에 자주 올려보자. 흰쌀밥, 면,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거나 늦은 밤 즐기는 야식도 줄이는 것이 좋다. 밥은 조금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술도 중성지방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다. 잦은 음주와 과음은 삼가고, 매일 먹는 한 끼의 구성을 건강한 재료로 바꾸는 것이 오래 지속하는 비결이다.

숫자는 생활 습관의 성적표다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움직임이다. 규칙적인 유산소운동은 체중과 중성지방 관리에 도움이 되고, HDL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처럼 부담이 적은 운동을 꾸준히 해도 좋다. 운동 부족과 비만, 흡연, 스트레스는 이상지질혈증과 관련이 있다. 하루 총활동량을 늘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금연하는 생활 습관이 식단 관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검진표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다. 오랜 시간 쌓인 식사와 운동, 생활 습관이 반영된 결과에 가깝다. 오늘 저녁부터 튀김 대신 생선을 먹고, 고기 옆에 채소를 더하고, 식사 후 잠시 걷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 눈에 띄는 변화는 천천히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습관이 모이면 다음 해 건강검진표의 숫자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콜레스테롤 검사표, 이렇게 읽어보세요

총콜레스테롤
혈액 속 총콜레스테롤의 양.
200mg/dL 미만이 바람직하다.

LDL 콜레스테롤
혈관 벽에 쌓일 수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한다. 130mg/dL 미만이 적정 수치지만, 개인의 심혈관 위험도에 따라 목표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

HDL 콜레스테롤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60mg/dL 이상이 정상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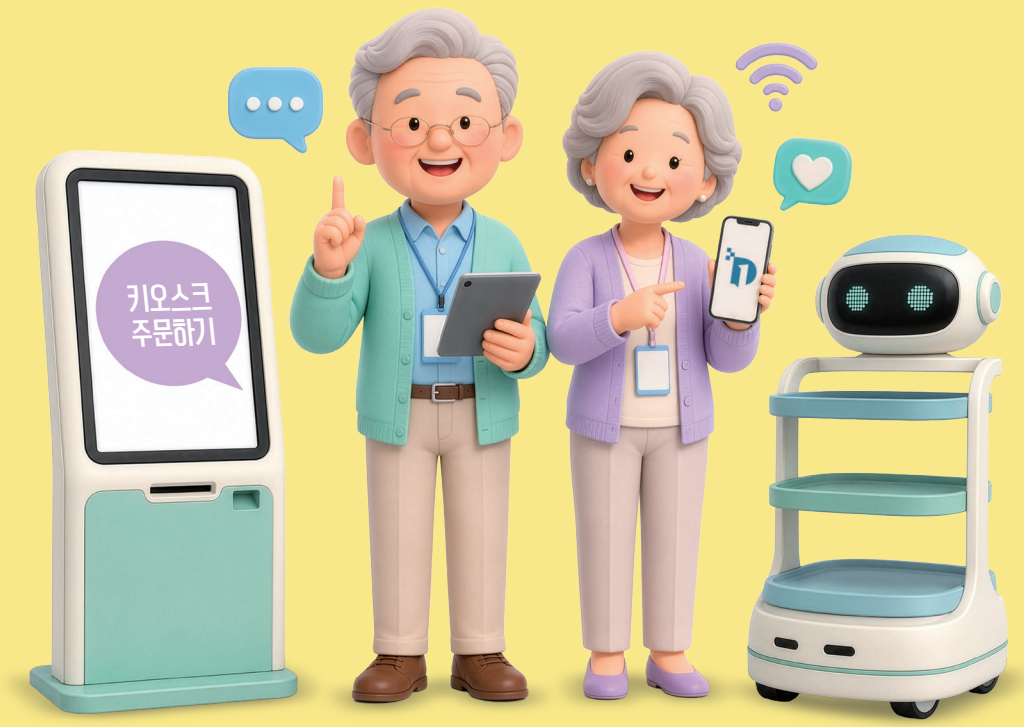
중성지방
남은 에너지가 지방 형태로 저장된 것.
150mg/dL 미만이 적정 수치다.

디지털이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앞에서 막막해지는 순간이 있다.
사용법을 몰라 몇 번이고 화면을 터치해 보다 결국 포기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혼자 끙끙대지 않아도 된다.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디지털 사용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다.**

글 유현경



가까운 곳에서 배워보세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다면 먼저 가까운 곳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거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원, 도서관 등의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관마다 운영 여부와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 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교육 내용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 기본 설정부터 사진 찍고 보내기, 앱 설치하기, 지도 이용하기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부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키오스크 주문이나 모바일 결제처럼 혼자 시도하기 부담스러웠던 기능도 차근차근 익힐 수 있다.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배우려고 욕심낼 필요도 없다. '사진 보내기',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기'처럼 지금 필요한 기능부터 하나씩 익혀보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디지털 기기에 대한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경기도 AI디지털배움터를 이용하세요

경기도는 디지털 기술이 낯선 도민을 위해 'AI디지털배움터'를 운영 중이다. 디지털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 등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키오스크,
집에서
먼저 연습해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AI디지털배움터로
연결됩니다.

교육은 스마트폰 활용법과 키오스크 이용, 모바일 금융서비스처럼 생활에 필요한 내용부터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이해, 디지털 윤리까지 다양하다. 과정도 초급·중급·심화로 나뉘어 있어 본인 수준에 맞게 시작하면 된다. 어떤 교육부터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AI·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을 활용해 보자. 자신의 디지털 활용 수준을 확인하고 알맞은 학습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다. 거점센터와 체험존에서는 키오스크와 스마트 앱 등을 직접 사용하며 연습해도 된다.

배움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가까운 곳에 교육시설이 부족한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 'AI 에듀버스'도 운영한다. AI 에듀버스는 교육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교육 공간이다. 교육장을 찾아가기 어려운 주민도 가까운 곳에서 디지털 기기를 접하고 사용법을 익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운영 장소와 프로그램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 AI디지털배움터(디지털배움터.kr)의 교육 일정이나 거주 지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도 미리 연습해 보세요

키오스크나 앱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 집에서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I디지털배움터에서는 스마트 앱 체험관과 키오스크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기능을 미리 연습할 수 있어 실제 기기를 사용할 때의 부담을 덜어준다.

생성형 AI가 궁금하다면 별도의 설치·가입·인증 없이 이용 가능한 AI 실습 콘텐츠도 있다.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막막한 초보자를 위해 상황에 따른 질문과 지시문 예시도 제공한다.

지역별 교육장과 교육과정은 '경기 AI디지털배움터'(ggedu.a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교육을 찾아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 방법이 어렵다면 디지털배움터 콜센터(1800-009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그 골목이 어찌나 넓어 보였던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방을 던져놓고 곧장 골목으로 뛰어나갔다. 친구 집 앞에서 "○○야, 놀자!" 하고 부르면 어느새 골목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흙바닥에 그은 선, 구슬 몇 알과 딱지 몇 장이면 해가 질 때까지 놀기에 충분했다. 가끔 부모님과 영화관에 가는 날이면 마음이 설렜다. 골목에서 시작된 우리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넓어져 갔다.

글 유현경 **사진**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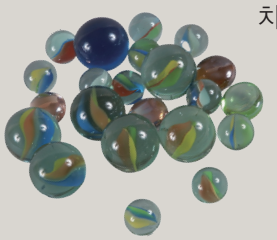
흙바닥에 금 하나 그으면 그곳이 놀이터

1970~1980년대 아이들에게 집 앞 골목과 학교 운동장, 동네 공터는 모두 놀이터였다. 흙바닥에 금 몇 개만 그으면 금세 놀이가 시작됐다. 구멍을 파거나 선을 긋고 구슬을 튕겨 상대의 구슬을 맞혔다. "맞았다! 이 구슬 이제 내 거다!" 예쁘고 큰 구슬을 따는 날이면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다.

종이만 있으면 딱지치기 판이 벌어졌다. 달력이나 과자 상자처럼 두꺼운 종이를 접어 만든 딱지를 바닥에 놓고 힘껏 내리쳤다. "뒤집는다. 잘 봐!" 상대 딱지가 뒤집히는 순간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다.

비사치기에는 납작한 돌멩이 하나면 충분했다. 돌을 던져 세워둔 비석을 쓰러뜨리고, 머리나 어깨, 발등에 돌을 올린 채 조심조심 움직였다. 친구 등을 타고 넘거나 편을 갈라 즐기는 말타기도 인기였다. 장난감이 많지 않던 시절, 아이들은 몸과 주변의 작은 물건만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냈다.

이제 골목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라졌다. 놀이터에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고, 집에서는 게임기와 태블릿 PC로 놀이를 즐긴다. 하지만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같은 옛 놀이는 전통놀이 체험 등을 통해 다시 아이들을 만난다. 부모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놀이가 되고, 아이에게는 처음 만나는 새로운 놀이가 된다.



독자 이벤트

'놀이터의 추억'을 짧은 글로 보내주세요

해 질 때까지 친구들과 뛰놀던 공터, 구슬 하나에 울고 웃던 골목, 손때 묻은 딱지와 비사치기에 쓰던 납작한 돌. 여러분의 어린 시절 놀이터는 어디였나요? 가장 좋아한 놀이와 함께 놀던 친구, 잊지 못할 재미있는 사건까지 나만의 '놀이터의 추억'을 들려주세요.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 남아 있던, 그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문자 접수 센터 **1599-3086**

※ 성함과 주소를 함께 기재해 보내주세요.





동네 영화관, 우리 동네에서 가장 화려한 곳

골목을 벗어나 특별한 외출을 하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동네 영화관이었다.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전, 도시 곳곳에는 단관 극장과 동네 극장이 있었다. 극장 앞에는 영화 제목과 배우들의 얼굴을 큼지막하게 그린 간판이 걸렸고, 영화 한 편을 보러 가는 일은 그 자체로 특별한 나들이였다.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그 말 한마디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떴다. 부모님 손을 잡고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용돈을 모아 보기도 했다. 극장 안 조명이 꺼지고 커다란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는 순간,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오늘날 영화관은 대형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다. 스마트폰으로 좌석을 예약하고, 영화와 함께 쇼핑과 식사도 즐긴다. 영화 보는 풍경은 달라졌지만 어두운 객석에서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는 순간의 설렘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Memories of the *Playground*



김밥 한 줄로 마음이 충만했던 나들이

휴일이면 가족의 놀이터는 조금 더 확장됐다. 돗자리와 도시락을 챙겨 강가와 계곡, 유원지로 향했다. 김밥과 삶은 달걀, 사이다 몇 병이면 나들이 준비는 충분했다. 어른들은 돗자리 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그 곁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휴대전화도 디지털카메라도 없던 시절, 필름 카메라로 남긴 기념사진은 오랫동안 앨범 한 면을 차지했다.

요즘 소풍 풍경은 한층 다양해졌다. 예쁜 돗자리와 테이블, 소품을 준비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도 한다. 마음에 드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 SNS에 공유하는 것도 나들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가족 모두가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더욱 특별했다. 인터넷으로 숙소를 비교하거나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을 수 없던 시절, 지도책을 펼쳐 목적지를 정하고 기차나 고속버스 시간을 알아봤다. 자가용이 흔하지 않아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는 여정도 여행의 일부였다. 경춘선은 청춘들의 낭만을 싣고 달리는 여행길이었다.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향하며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에 한눈을 파는 것 자체가 특별한 추억이 됐다.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먹으며 가는 그 시간마저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여행이었다. 놀이 도구와 여행지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즐거움은 세대를 넘어 계속된다.

글 편집실 일러스트 바카


결산
심의
사업현장
의회
세금계산서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일까요?
경기도의회
예산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썼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금은 냈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겠죠?
1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이제 꼼꼼히
따져봐야죠.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예산안
2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상임위원회
금액은
적정한지도
봅시다.
사업계획서
예산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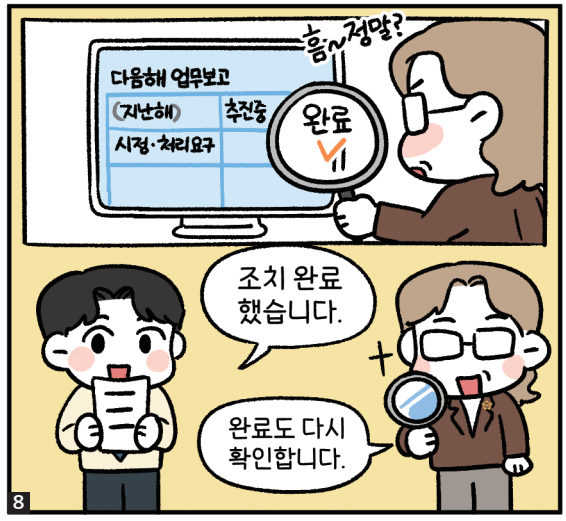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회의'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분야별 심사에서
전체 재정 심사로
4

'의회툰'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쉽게 풀어낸 웹툰입니다.
도민의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의회의 역할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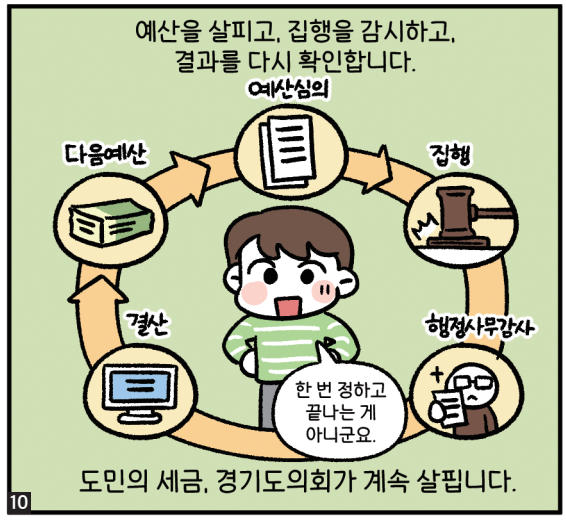












여섯 빛깔로 만나는 경기 가을

군포 전시

그림책꿈마루 개관 3주년 특별 전시

미공개 원화전, 프리뷰

2026. 9. 1.-10. 31.



한 권의 그림책이 완성되기까지 작가가 쌓아온 창작의 시간을 만나는 전시다. 미공개 원화부터 신작까지, 책장 너머 원화 속 선 하나에 깃든 흔적과 픽셀로 이루어진 장면에 담긴 김세진·김신희·다은·박철민·유자·이승범·이웅기·홀링 등 8인 작가의 호흡을 만날 수 있다.

장소 그림책꿈마루 기획전시실
요금 무료
문의 031-391-4545(단체 관람 사전 예약 필요)
홈페이지 gunpo.go.kr/picturebook

파주 전시

조선의 꽃밭에서 날아온 나비

나비의 시간 :조선에서 현재까지

2026. 7. 15.~11. 30.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나비가 어떻게 표현되고 기록돼 왔는지 살펴보는 기획전이다. 조선시대 민화부터 신사임당·김홍도·남계우의 그림, 자연의 모습을 자세히 담아낸 세밀화와 표본까지 시대에 따라 달라진 나비의 모습을 만난다.

장소 파주나비나라박물관
요금 7,000원
문의 031-955-3727
홈페이지 nabynara.com

안산 전시

포구는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

바다에서 도시로, 다시 바다로

2026. 7. 21.~12. 31.



안산의 바다와 어촌이 간직한 기억을 조명한다. 사라진 사리포구를 중심으로 어촌에서 도시로 변해온 안산의 모습을 살펴보는 '기억의 포구'와 지난 10년간 박물관이 수집하고 기록한 이야기를 되짚는 '기억의 창고'로 구성된다.

장소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요금 성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문의 031-440-8310
홈페이지 ansanuc.net/museum

경기도 전시·공연

김포 전시

한강 끝 작은 마을, 예술이 머물다

보구곶, 시간을 걷다

2026. 8. 7.~11. 7.



'시간을 걷는다'는 시선으로 지역의 장소성과 기억을 살펴보고 설치 작품 등을 통해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접경지역의 작은 마을에 자리한 미술관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며 지역과 예술이 만나는 특별한 풍경을 경험해 보자.

장소 작은미술관 보구곶
요금 무료
문의 031-999-3972
홈페이지 gcf.or.kr

수원 전시

튤립 한 송이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다

꽃에서 태어난 소녀, 엄지공주

2026. 4. 28.~11. 15.



안데르센 동화 <엄지공주>를 자연과 생태의 시선으로 새롭게 만나는 이야기형 전시다. 튤립에서 태어난 작은 소녀가 두꺼비와 풍뎅이, 들쥐, 제비 등을 만나며 여행하는 동화의 주요 장면을 따라간다. 수목원에서 어린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전시다.

장소 일월수목원 전시온실
요금 성인 4,000원, 청소년 2,500원
문의 031-369-2380
홈페이지 suwon.go.kr/web/iwarbor/index.do

용인 공연

전통은 오늘도 젊어진다

젊은명인: Young Virtuoso

2026. 11. 19.



차세대 국악 인재들이 한 무대에 오른다. 젊은 국악 연주자들의 패기와 개성이 담긴 공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전통을 탄탄하게 익힌 젊은 연주자들이 저마다의 기량과 음악적 색채를 펼치며 우리 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전한다.

장소 경기국악원 국악당
요금 전석 3만 원
문의 031-289-6472~5
홈페이지 ggac.or.kr

독자 솜씨 마당

소중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Reader Event -

<경기도의회> 소식지 독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그리운 얼굴과 잊지 못할 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추억을 함께 나눠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01

love



엄마가 쥐여준 달걀

닭에게 모이를 주며 얻은 달걀을 늘 자식 손에 쥐여주시던 어머니. 이제야 그 달걀 하나에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오정진(0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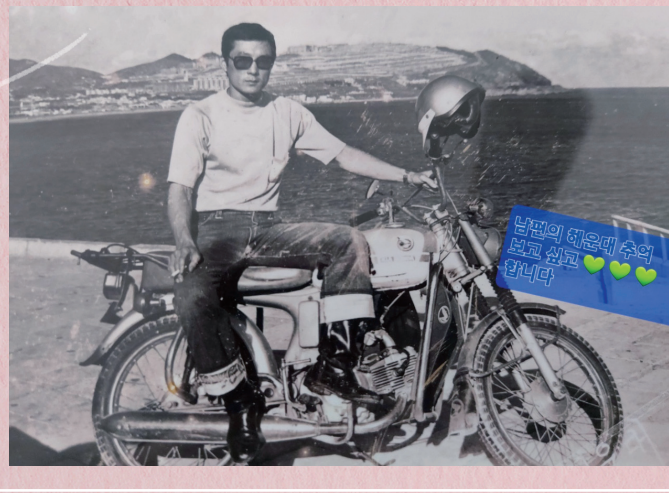


고운 추억

검정 고무신에 꽃을
그려 넣고 누구 것이 더
예쁘냐며 발을 내밀던 시절.
그 고운 추억은 지금도
가슴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문득 뵙고 싶습니다.
김영애(51)**

#03

Happy



보고 싶은 당신에게

남편과 함께했던 평범한
날들이 참 그립습니다.
남편, 별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잘 지내. 보고 싶다!
경기도의회 애독자(38)**

#04



그날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복을 벗던 날,
오빠와 남동생과 함께 남긴
사진 한 장. 빛바랜 사진 속
앳된 얼굴을 보니 참 먼 길을
걸어왔구나 싶네요. 그날의
우리가 새삼 그리워집니다.
김은경(95)**

독자 이벤트

추억을 보내주세요

추억은 사진 한 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들려주세요. 오래 간직해 온 사진과 그 안에 담긴 짧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지나온 시간이 따뜻한 추억이 되어 다시 피어납니다. 보내주신 이야기와 사진 중 일부는 다음 호 '독자 솜씨 마당'에 소개됩니다.

문자 접수 센터 **1599-3086**
※ 접수 마감: 11월 25일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기도의회> 발송 및 경품 지급 행정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도민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경기!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제2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2026. 9. 15.)



의정활동을 충실히 담아 도민과 의회를 잇는 소식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영봉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현장에서 뛰는 의원들의 노력을 지면에 생생하게 소개해 주세요.

김승기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면에 균형 있게 담아야 합니다.

김선희 위원
(국민의힘, 용인6)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김해련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양7)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 공간으로 배부처를 넓혔으면 합니다.

윤도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양3)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과 성과가 구체적으로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최수연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주3)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의 의미를 풀어내는 소식지를 만들어주세요.

정윤경 위원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

AI를 활용한 디자인은 관련 지침 준수와 철저한 검수가 필요합니다.

이하유 위원
(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창작학부 교수)

경기도를
바꾸는 첫걸음!

경기도의회의 최신 소식을 담은
의정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 보세요.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기도의회> 발송 및 경품 지급 행정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Gyeonggido Assembly

지금 구독하세요!
ON

구독 신청
1599-3086
(문자 전용)

성함, 전화번호,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문의 031-8008-7123
(경기도의회 언론홍보과 뉴미디어팀)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의정의 발자취를 담은 **경기도의회 전자회의록!**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회기별, 회의별, 의원별, 연도별 등 **원하는 조건으로 손쉽게 검색** 가능합니다.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실시간 인터넷방송까지
한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www.ggc.go.kr

→ 회의록 → 전자회의록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생명이 위급한 순간,
곁을 지키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가장 위급하고 두려운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촌각을 다투고 감염병과 재난의 현장에서 위험을 마주하며 도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온 의료진
그들의 책임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생명이 위기를 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모든 의료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MIX
Paper | Supporting responsible forestry
FSC® C129206
www.fsc.org
PRINTED WITH SOY INK™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산림보호를 위해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만듭니다.